

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기사거리가 있으면 이메일 (info@townnewsusa.com) 또는 전화 (562-404-0027) 로 알려주세요.

종교



# 오늘도 큰 기적이 있었구나

## 교황, '전쟁 종식' 간청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24일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언급하며 전 세계 지도자들에게 전쟁 종식을 간곡히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파했다.

교황은 이날 바티칸 바오로 6세 홀에서 열린 수요일 밤 알현에서 "나는 중동,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그리고 고통받는 우크라이나를 생각하고 있다"며 "나는 희생자들과 그들이 사랑했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사람, 특히 정치적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전쟁을 종식해 인간의 생명을 보호해줄 것을 간청한다"며 "전쟁은 언제나 패배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일한 승자는 무기 제조업체"라고 덧붙였다.

교황은 1월 27일이 '국제 홀로코스트(2차 대전 당시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 희생자 추모의 날'임을 상기하며 "수백만 명에 이르는 끔찍한 학살에 대한 기억은 증오와 폭력의 논리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두가 잊지 않게 도와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재난·난민위헌 자선콘서트

미주복음방송(사장 이영선 목사)이 재난, 난민을 위해 개최하는 자선 콘서트 '2024 나눔On 희망 On'을 개최한다.

이 콘서트는 2020년부터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나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열리고 있으며, 올해는 튀르키예, 우크라이나, 아이티 등 세 국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과, 지역사회 자선단체들을 돕기 위해 진행된다. 올해 이 행사는 특별히 '나눔On 콘서트'와 '나눔On 생방송' 등 2가지 프로젝트로 각각 진행된다.

나눔On 콘서트 개최 일시와 장소는 다음과 같다.

- 2월 9일(금) 오후 7시, 남가주동신교회(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 2월 10일(토) 오후 6시, LA주님의영광교회(1801 S Grand Ave., L.A., CA 90015)
- 2월 11일(일) 오후 5시, 어바인 베델교회(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후원 티켓은 20달러이며 미주복음방송 누리집 (www.kgbc.com), 전화 및 시중 한인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나눔On 생방송은 오는 2월 1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 문의 및 티켓 구입: (714) 484-1190

흔히 "별 일 없으십니까?" 혹은 "별고 없으십니까?" 라고 안부를 묻는다. 이 평범한 인사말 속에 삶의 참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별 일 없음'이란 '별다른 일이 없다'는 뜻이다. '별고란' 뜻밖의 사고'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별고'가 있다면 큰일이다.

요즘 기상 재해가 빈번하다. 이런 것을 우리는 '별고'라고 한다. '별고란' '재난과 사고'를 말한다. 반면 아무 일 없는 것을 '평상시'라고 한다. '평상시'의 반대말은 '비상시'다.

개인적으로는 잘 먹고, 잘 자고, 잘 배설하는 것이 '별 일 없음'의 것이다. 곧 건강하다는 의미이다. '별다른 일 없음'이 곧 행복한 평범한 일상인 것이다.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단란하게 저녁식사를 하는 것이 평범한 일상이다. 그런데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식사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무언가 잘못된 것이다. 이를테면 직장에 출근했던 남편이나 학교에 갔던 자녀가 제 시간에 돌아오지 않으면 이미 이상이 생긴 것이다. 그러다가 혹시 불행한 사고의 소식을 접하게 되면 혼비백산하게 된다.

이와 같이 '별 일 없음'이 생기면 그때서야 아무 일 없던 그때를 그리워하며, 그때가 바로 행복이었음을 뒤늦게 깨닫게 된다. 아무 일 없는 평범한 일상이 곧 행복임을 알아야 한다.

붓다는 『숫따니빠따(經集)』에서 "부모를 섬기는 것, 처자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 일에 질서가 있어 혼란하지 않는 것, 이것이 더없는 행복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참으로 삶의 본질을 꿰뚫어 본 가르침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은 평범한 일상 속에 최상의 행복이 있다는 말이다. 부모가



살아있다는 것은 자식에게 최상의 기쁨이다. 그리고 화목한 가정은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바다. 여기에 다시 일에 질서가 있어 혼란하지 않는 것이 바로 행복한 삶이다.

행복은 평범한 일상의 범주를 벗어 나지 않는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똑같은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 안정된 가정에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권태를 느껴 밖으로 눈을 돌리는 사람이 간혹 있다. 그때부터 그 가정에는 불행이 시작된다.

삶의 재충전을 위한 일상의 탈출이라면 권장할 만하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아무 일 없음보다 못하다. 평범한 일상이 곧 기적임을 명심해야 한다.

사전에서 말하는 기적이란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아주 신기한 일'을 말한다. 기독교에서는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을 하느님·성령의 힘을 입은 특수한 사람이 행하는 일 곧, 예수가 '기도로써 문둥병·얇은뱀이를 고친 일' 등을 기적이라고 한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말해서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을 이룬 것만 기적이 아니다. 일상이 곧 기적인 것이다. 아무런 이상이 없는 평상시가 곧 기적이다. 사실 한 인간으로 살아

있다는 그 자체가 기적이다.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이기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잠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잠자리에 들기까지 별다른 일이 없었다는 것, 그 자체에 무한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외줄타기에 비유하기도 한다. 매우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서 모조건 부처님께 매달려 복을 빌라는 것은 아니다. 맹목적으로 부처님께 구원을 청하는 것은 올바른 불교도의 신앙이 아니다. 부처님은 구세주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구한다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 보다는 계율을 잘 지키고 바르게 하루하루의 삶을 영위한다면 오늘도 어제와 같이 아무 일 없을 것이다. 이러한 삶이야말로 보다 현실적인 불교도의 삶인 것이다.

외출했다가 사찰로 돌아오면 제일 먼저 종무소에 들러 '별 일 없었느냐?'고 묻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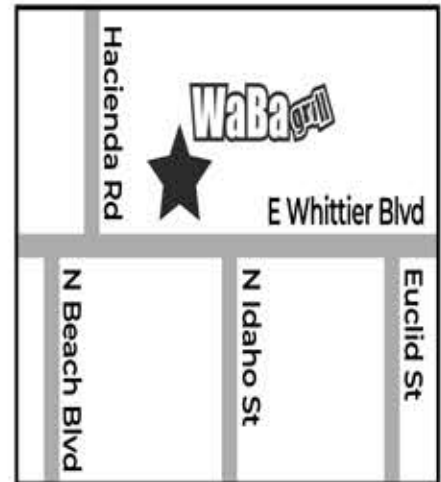
종무소 직원은 '절에 무슨 별 일이 있었느냐?'고 반문한다.

그러면 나는 속으로 '오늘도 큰 기적이 있었구나!' 하고 안심한다.

-마성 스님-



La Habra Eat Smart, Be Healthy!



# 562.266.0011

<https://order.wabagrill.com/store/5966>

1351 W. Whittier Blvd. La Habra, CA 90631